

2026년 KBO 정규시즌이 시작된 게 언제냐면, 3월 28일(토) 개막이에요. 팀당 144경기, 전체 720경기로 잡혀 있으니, 한마디로 “틈이 없는 시즌”입니다. 문제는 이게 다 똑같이 한 시간에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평일은 보통 18:30 쪽으로 굴러가다가도, 주말이나 공휴일은 14:00 또는 17:00으로 움직이고, 노동절 같은 특정 공지나 폭염 같은 기상 사유로 실제 시작 시간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구중계 챙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케줄을 “대충 검색”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확인”하는 게 체감 품질을 확 올려줘요. 특히 같은 페이지에서 KBO랑 mlb중계까지 같이 보려는 사람들은, 한 번에 정리된 일별 스케줄 구조가 중요해지고요. 이 글에서는 2026 KBO 정규시즌 720경기 야구중계 스케줄을 보는 법, 그리고 한국 시청자 관점에서 MLB까지 같이 돌려보는 방법을 현실적으로 풀어볼게요.

720경기 시즌, 스케줄이 흔들리는 지점부터 잡자

KBO는 기본적으로 정규 편성 시작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평일 18:30, 주말이나 공휴일 14:00 또는 17:00이 흔한 패턴이고, 다만 공지에 따라 실제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5월 1일 노동절 경기 시작 시간을 18:30에서 17:00으로 변경한 사례가 있었죠. 이런 거 하나 놓치면 당일에 시청 시간 자체가 어긋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우천 같은 변수예요. KBO 우천 취소 경기는 예비일 또는 더블헤더로 재편성되는데, 9월 15일 이후 더블헤더 편성은 시작 시간이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요. 1차전은 평일 15:00, 주말·공휴일 14:00, 2차전은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7:00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오늘 더블헤더인가?” 수준을 넘어, “첫 경기가 몇 시에 시작하냐”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야구는 연속으로 두 경기 들어가면 체감상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서, 대충 보면 바로 놓치기 쉽거든요.

정리하면, 720경기 시즌에서 실제 시청 계획을 망치는 건 보통 두 가지예요. 공지로 인한 시작 시간 변경, 그리고 더블헤더로 재편성되는 우천 변수가 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KBO 일별 스케줄을 쓰는 이유, ‘중계 채널’까지 같이 보이기 때문

야구중계사이트를 보면 한 화면에 “중계 정보”가 딱 들어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진짜로 시간 지키는 데 도움 되는 방식은, 공식 일별 스케줄처럼 날짜별로 경기 시간, 중계 TV, 구장, 결과까지 같이 확인되는 구조를 먼저 보는 겁니다.

KBO도 일별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 시간과 중계 TV 등을 함께 보여줘요. 이런 형태는 검색 결과에서 링크마다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 번에 정리해 주니까, “오늘 몇 시고 어디서 중계해?”를 빠르게 답할 수 있어요.

이게 특히 중요한 이유는, 중계 채널 안내가 시차나 편성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는 결국 “몇 시에, 어디서”를 알고 들어가야 해요. 야구중계사이트는 편의성이 강하지만, 가장 먼저는 공식 일별 일정으로 ‘틀린 시간표’ 자체를 제거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시작 시간 감각 잡기: 평일 18:30, 주말 14:00 또는 17:00, 그리고 예외

2026 KBO 정규시즌 편성은 기본 골격이 있어요. 그래도 시즌이 길다 보니 변수가 꽤 섞입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감각을 짚어볼게요.

평일은 보통 18:30을 기준으로 생각하되, 공지로 바뀔 수 있다는 여지를 항상 남겨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5월 1일 같은 경우에는 노동절 경기 시작 시간이 조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 등 기상 사유로도 경기 개시 시간이 조정될 수 있어요. 이건 “아마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바뀌는 형태로 공지로 올라오는 케이스가 존재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14:00이나 17:00 중 하나로 운영되는 흐름이 있고요. 그런데 우천으로 예비일이나 더블헤더로 넘어가면, 9월 15일 이후 규정처럼 더블헤더 1차, 2차 시작 시간이 날카롭게 갈라질 수 있어요.

결국 “요일 기준으로 외워두되, 당일에는 일별 일정 확인”이 제일 안전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말하자면, 야구를 자주 보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정반대 습관이 생겨요. 익숙해져서 “지난주랑 똑같겠지”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더블헤더나 공지 변경은 지난주 패턴과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즌에는 그 차이를 줄이는 게 진짜 실력이예요.

2026 올스타전은 7월 11일(토), 그 전후 운영도 체크할 포인트

KBO는 2026년 올스타전을 7월 11일(토)로 발표했어요. 이건 단순한 날짜 정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즌 흐름 전체에서 경기 분산이나 일정 체감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올스타전 당일이 모든 경기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계 수요가 몰리는 구간이 생기고, 그 사이에 팀들 컨디션과 투수 운영이 달라지는 체감이 있어요.

이때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올스타전이니까 중계 스케줄을 덜 보게 되는 것.” 근데 오히려 올스타전 전후로는 당겨지거나 미뤄진 경기, 우천 복구가 섞이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스타전 전후일수록 일별 일정 확인을 놓치지 않는 쪽이 편해요.

KBO와 MLB를 같이 보는 사람들의 현실: 시차는 ‘감각’이 아니라 ‘계산’

KBO는 한국 시간 KST(UTC+9) 기준이고, MLB 관련 중계 안내는 미국 동부시간 ET 기준 안내가 많아요. 즉,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시차 확인이 중요합니다. KST는 UTC보다 9시간 빠르고, ET보다 14시간 빠르다는 점이 기준이에요.

이 말은 간단해 보여도, 실전에서는 꽤 자주 헷갈립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밤 시간에 잡힌 경기라면 한국에서는 다음 날 새벽이 되는 식으로, 시간대가 넘어가요. 그래서 MLB도 같이 보겠다면 “야구중계 사이트 하나로 끝” 같은 접근보다, KBO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확실히 잡고 MLB는 ET 안내가 뭔지 먼저 확인한 다음에 비교하는 게 안전합니다.

또 하나 현실적인 포인트는, MLB는 일정 자체가 162경기 체제로 장기 시즌이라는 점이에요. KBO는 단일리그 10개 구단 체제에서 팀당 144경기, 전체 720경기고요. 즉, 같은 “정규시즌”이라도 경기 수와 편성 방식이 다르고, 시청자가 느끼는 리듬도 달라집니다. 한국에서 KBO를 중심으로 보던 사람이 MLB를 섞으면, 타임테이블 감각이 뒤집히는 구간이 생겨요. 그럴수록 시차 계산을 습관으로 만드는 게 편합니다.

MLB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시작, Opening Day는 3월 26일

MLB 2026 정규시즌은 3월 25일 Opening Night으로 시작했고, 전통적인 Opening Day는 3월 26일이었습니다. 정규시즌은 162경기로 운영돼요. 그리고 MLB 2026 올스타전은 7월 14일(화), 필라델피아 Citizens Bank Park에서 열렸습니다.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특정 경기 정보가 아니라 “시즌이 언제 열리고, 언제 이벤트가 끼는지”예요. KBO는 3월 28일 개막이고 올스타는 7월 11일(토), MLB는 3월 25일 Opening Night부터 시작해서 7월 14일에 올스타전이 있죠. 그러다 보니 한국 시청자 입장에서는 7월 중순에 두 리그 모두 열기가 확 올라가요.

이럴 때 야구중계사이트나 방송 편성 페이지를 확인할 때는 “해당 날짜에 무슨 게임이 몇 시에 있나”를 KBO부터 먼저 확정하고, 그 다음에 mlb중계가 언제 [mlb중계](#) 들어오는지 비교하는 방식이 머리가 덜 복잡합니다.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Where to watch" 안내도 제공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식 쪽에서 시간과 시청 정보를 먼저 맞춘 다음, 실제로 내가 보는 채널이랑 연결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2026 KBO 야구중계 스케줄을 "실수 없이" 챙기는 방식

여기부터는 실제로 써먹는 방식으로 이야기할게요. 스케줄은 결국 당일 컨디션을 포함해서 "내가 볼 수 있는지"가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크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공식 일별 일정으로 시간을 고정하고, 그다음 중계 채널이 내 기준에서 맞는지 확인하고, 마지막에 변수를 확인하는 흐름요.

아래는 제가 자주 쓰는 짧은 점검 흐름이에요.



1. 오늘 날짜 기준으로 KBO 일별 일정에서 경기 시간과 중계 TV 확인하기
2. 시작 시간이 평일 18:30, 주말 14:00 또는 17:00 패턴에서 벗어나면 공지 변동 사유를 먼저 확인하기
3. 우천 취소나 더블헤더가 섞이는 주간인지 확인하기, 특히 9월 15일 이후는 1차 2차 시작 시간이 다르게 잡힘
4. MLB는 ET 기준 안내가 있는지 체크하고 한국 시간 KST로 환산할 것
5. 올스타전 전후로는 경기 편성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서 당일 일정 확인을 더 자주 하기

이 정도만 지키면 “어제는 분명 오후였는데 왜 오늘은 새벽이지?” 같은 헛수고가 확 줄어요. 그리고 야구중계사이트에서 링크가 여러 개로 분산돼 있어도, 기준점 하나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블헤더는 ‘한 번 더 보기’가 아니라 ‘시간표 다시 쓰기’다

우천 취소가 생기고 더블헤더로 넘어가는 날은, 사실상 일정이 새로 생긴 날이에요. 단순히 “경기 하나가 추가됐다”가 아니라, 9월 15일 이후 같은 구간에서는 1차전과 2차전의 시작 시간이 평일, 주말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예를 들어 9월 15일 이후 더블헤더라면 1차전은 평일 15:00, 주말·공휴일 14:00 시작이고, 2차전은 평일 18:30, 주말·공휴일 17:00으로 시작합니다. 이건 타이밍 게임이에요.

첫 경기 보고 있다가 두 번째 경기 시작 시간을 놓치면, 그 다음 경기 시청 흐름이 무너져요. 특히 투수 교체나 볼펜 운영이 변수로 들어오는 경기면, 두 번째 게임을 놓친 게 단순 결석 이상으로 아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블헤더 날에는 메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메모까지는 아니어도, 휴대폰 일정 앱에 시작 시간 두 개를 박아두는 편이에요. 야구가 시작되면 집중이 올라가서, 통신이나 알림에 의존하면 오히려 위험할 때가 있거든요. 알림이 늦거나, 방송 채널 전환 때문에 앱이 멈칫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MLB를 섞을 때 생기는 함정: 일정은 길고, 시청 피로도도 같이 쌓인다

MLB중계를 같이 챙기는 사람은 보통 두 부류예요.

하나는 KBO를 기본으로 깔고, MLB는 틈틈이 넣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하루에 두 리그를 번갈아 보는 사람입니다.

이때 함정은 시간표 문제가 아니라 피로도예요. MLB는 162경기라서, 시즌이 진행될수록 “어제 본 리그”와 “오늘 보는 리그”가 머릿속에서 섞입니다. 그러다 보면 KBO 경기와 MLB 경기 시작 시간을 잘못 기억해서, 현실적으로 시청을 놓치는 일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MLB를 섞을 때는 KBO와 같은 스타일로 처리하기보다는, MLB 쪽은 ET 기준 안내를 확인한 뒤에 한국 시간으로 딱 변환해서 한 번에 고정하는 편이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억이 덜 흔들려요.

또한 MLB는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어디에서 보는지 안내가 제공되기 때문에, “중계 채널을 헤매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게 쌓이면 체감이 커져요. 야구는 어차피 몰입이 핵심이라, 시청 직전에 채널 탐색에 시간을 쓰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720경기 시즌을 제대로 즐기기 위한 현실적인 마인드

솔직히 말하면, 720경기를 다 본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시즌은 “전부를 보는 게임”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정확히 보게 만드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스케줄은 기계적으로 따라가기보다, 내 생활 리듬과 경기 시작 시간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는 도구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은 18:30 중심으로 잡히니까, 퇴근 시간과 식사 시간을 고려해서 “평일은 1경기만”처럼 룰을 정하면 피로가 줄어요. 주말은 14:00 또는 17:00이 많으니, 오전이나 저녁 약속과 충돌하지 않는 쪽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더블헤더가 끼는 날에는 그날만큼은 ‘시간표를 새로 쓰는 날’로 취급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야구중계사이트를 몇 개 돌아다닐 필요도 줄고, mlb중계까지 섞더라도 흐름이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력, 선수 컨디션, 선발투수 변화 같은 디테일에도 집중할 여유가 생기거든요.

야구중계, mlb중계까지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결국 사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건 “한 페이지에서 정리되는지”예요. KBO는 일별 일정 페이지에서 경기 시간, 중계 TV, 구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MLB도 공식 일정 페이지에서 날짜별 경기와 시청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기반으로 KBO와 MLB를 함께 관리하면, 야구중계사이트를 통해 얻는 편의성을 더 믿고 활용할 수 있어요.

만약 당신이 찾고 있는 게 “정확한 하루”라면, 하루 단위로 공식 일별 일정부터 확인하는 게 제일 깔끔합니다. 반대로 “시즌 전체 느낌”이 필요하다면, 개막일과 올스타전 시점처럼 큰 이벤트를 먼저 머릿속에 두고, 그 사이에서 당일 변수를 일별로 제거해주는 방식이 좋아요.

KBO는 3월 28일 개막, 정규시즌은 팀당 144경기 합쳐서 720경기. 그리고 올스타는 7월 11일(토). MLB는 3월 25일 Opening Night, 3월 26일 Opening Day, 정규시즌은 162경기, 올스타는 7월 14일(화)입니다. 숫자가 박히면 스케줄을 보는 감각이 달라져요.

원하면, 당신이 주로 보는 리그 우선순위가 KBO인지 MLB인지, 그리고 평일에 보는 편인지 주말 위주인지 물어보고 그 패턴에 맞춰 “하루 체크 기준”을 더 현실적으로 맞춰줄 수도 있어요.